



혼돈과 지루함 그리고 재충전

글 _ 최기석 실장 · 국가R&D시스템개발실 · choi@kist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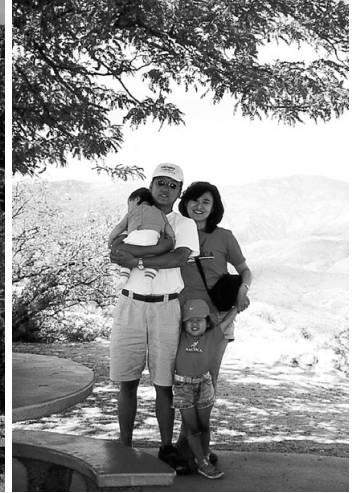
KISTI에 입사해 10여년이 넘는 세월을 근무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 갈 무렵 연구소의 배려로 미국의 nothwestern 대학에 1년간 연구연가를 다녀올 기회가 생겼다. 막상 떠나려고 하니 결정해야할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족과 함께 갈 건지가 가장 큰 문제였다. 당시 나는 어린 딸이 있었고 집사람은 둘째를 가진지 한 3개월 정도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쪽 대학의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 임신한 와이프와 함께 갈 수 있는지 여쭙보았을 때, 아무 문제없다는 그 쪽의 답장을 받고 가족 모두가 함께 갈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나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에게 사전 준비에 필요한 지식들을 전수받아 주택 문제 등을 떠나기 전에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그리 만만한 문제가 아니어서 현지에 도착해서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리라고 마음먹고 편안하게 출발하기로 하였다.

드디어 2001년 9월 10일, 우리 가족은 시카고행 비행기에 올랐다. 현지 도착 시간은 2001년 9월 10일 오후 6시 30분경.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을 빠져 나오니 8시가 다 되었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 모든 걸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거워 지는 걸 느꼈으나 지금 당장은 오늘 밤 묵을 숙소를 잡는 것이 문제였다. 자동차 렌트를 하기위해 렌트가 데스크에 들려 국제면허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것 외에 한국에서 쓰던 면허증도 같이 줘야만 자동차를 빌려줄 수 있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하였다. 미국에 온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다니 이럴 수가...

원래는 차를 구입하기 전까지는 자동차를 빌려서 집도 구하러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려고 했는데 그럼 어찌란 말인가? 더구나 지금은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임신한 집사람과 어린 애도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데스크 맨 끝자리, 후줄근해 보이는 곳에서 이리로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게 보였다. 자기네는 국제면허만 있어도 차를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순간 안도하면서, 호텔은 nothwestern 대학 근처에서 잡으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공항을 빠져나왔다.

그 때가 저녁 10시가 넘는 시간이었다. 일단 호텔부터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고 목적지로 가는데 아무리 달려도 다운타운 같은 곳은 나오지 않고, 주택가 외곽지대 같은 곳만 계속되는 게 아닌가? 가로등도 없어 길은 어둡고 인적도 드물어 무섭기까지 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뒷자리의 애는 자고 있고 집사람은 지쳐 있었다. 목적지는 다음날 날이 밝으면 찾기로 하고 가까운 호텔로 향했다. 그 때가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으니 나도 피곤했지만 가족들 고생시킨 걸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다음날 무사히 도착했다고 한국 집에 전화를 해보니, 가족들이 난리가 나 있었다.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해서 붕괴됐는데 괜찮냐는 것이다. 호텔 TV를 켜보니 정말로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했다는 소식이 보도 되고 있었다. 만약 내가 출발을 하루만 늦췄더라도 아마 난 미국에 오지 못했을 것이다. 까닭모를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자유분방하고 개인주의적인 미국인들이 테러를 당한 11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모두 멈춰 서서 몇 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애도를 표하거나, 저녁때 삼삼오오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들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그 테러의 여파로 나에게도 매우 힘든 일들이 닥쳐왔다. 집 계약을 하거나 차를 구매하는 등 통상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와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시급했는데, 강화된 보안과 안전점검 등으로 다른 사람들 보다 두세배는 더 발품을 팔아야만 했던 것이다.

어렵게 이 모든 걸 얻고 나서야 비로소 미국 생활에 정착이 되기 시작했다. 침대와 이불 등 당장 필요한 것을 먼저 사고, 기타 다른 살림살이 들은 주말에 열리는 garage sale이나

moving sale을 부지런히 쫓아 다니며 구해나갔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다가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을 매우 싼 값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나처럼 한시적으로 미국생활을 할 사람들에게겐 안성맞춤이었다.

학교에 나가 교수님과 연구 분야를 정하고 같이 연구할 파트너를 소개 받았다. Manoranja Dash라는 인도인 이었다. 그와 함께 데이터 마이닝 관련 전처리 분야인 feature selection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게 되었다. 우리는 12월에 일본에서 열리는 The 2002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 Mining이라는 컨퍼런스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의미 있는 feature를 추출하기 위한 연구와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인도 친구는 자기가 믿는 종교적 신념으로 고기는 절대 안 먹는다고 했다. 집도 내가 살던 건물의 바로 옆이어서 가깝게 지냈는데 한번은 카레를 만들어주면서 먹어보라고 해서 집에 가지고 가서 맛을 봤는데, 나를 포함한 우리식구 모두 먹으려 하질 않아 그냥 버린 적도 있었다. 물론 그 친구 역시 처음 보는 음식은 안 먹으려고 해서 우리 음식을 나누어 줄 수 없었다.

우연히 들린 한인 식당의 주인아저씨가 소개해주는 교회에 등록하고 그 곳의 교인들과 친분을 쌓아 나가기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생활과 비교하면 너무나 정적이고 따분한 미국에서도 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교회에 나가서 교인들과 사귀고 교회 활동을 하는 것 이외엔 다른 특별한 일은 없는 듯 했다. 하긴 어디 가서 술을 마시려고 해도 우리나라처럼 가까운 곳에 술집도 없고 조금만 움직이려면 무조건 차를 타고 다녀야 하니(참고로 우리집에서 제일 가까운 한인 슈퍼는 약 16km 떨어져 있고, 다녔던 교회는 20km정도 떨어져있었다.) 우리처럼 오밀조밀 모여 정겹게 사는 맛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래도 부러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산층 정도만 되면 앞뒤로 잔디가 깔린 마당이 있는 넓은 집(지하1층 지상2층)에 자동차도 우리가 흔히 외제차라고 부르는 고급차들을 타고 다니며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어르신들을 볼 때면, 한국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을 못내 그리워하는 것 같아 무척 안쓰러웠다. 그래서 몇몇 친하게 지내던 분들에게 MSN메신저 프로그램을 가르쳐 드렸더니, 매우 좋아 하셨다. 미국은 네트워크 보급률이 낮아서 전화선을 이용한 모뎀을 써야만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긴 했지만, 한국에 있는 그리운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들 즐거워하셨다.

어느덧 철이 바뀌어 추운 겨울이 왔다. 집사람은 만삭이 다 되어갔고 이제 곧 둘째가 태어날 때가 됐다. 머나먼 이국땅에 와서 둘째 아기가 태어나게 될 줄 어찌 알았을까? 미국은 속지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둘째는 미국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다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하필 그 무렵 한국의 주요 뉴스거리중 하나가 원정출산에 관한 내용이었으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꼴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걸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태어난 둘째의 운명은 그렇게 되어진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둘째 딸아이가 태어나고 미국국적을 받고 다음에 한국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했다. 4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받으니 둘째가 좀 특이하다는 것이 느껴졌다.

미국의 중서부는 넓은 평원 지대이고 또한 크고 작은 호수가 곳곳에 널려있었다. 시카고 바로 옆에는 오대호의 하나인 미시건호가 있고, 옆 미네소타 주는 호수가 만개가 넘어 lake state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다. 화창한 봄·여름엔 호숫가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배를 빌려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겨

울과 달리 여름은 건조하고 시원한 편이어서 지내기가 매우 좋았다. 주말이면 나는 가족과 함께 근처 가까운(아무리 가깝다고 해봐야 최소 80km가 넘음) 호숫가에서 산책을 즐기거나 대형 쇼핑몰 등으로 구경을 다녔다. 어디를 가나 잔디가 깔린 공원이 있고 나무그늘에 앉기만 하면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와서 여름 나절을 보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어느덧 약속한 일년을 거의 보내고 귀국을 얼마 남기지 않았을 즈음, 나는 이삿집 정리와 자동차 처분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나 역시 학교에 moving sale 광고를 냈고 자동차 또한 처분한다는 광고를 냈다. 침대 등 웬만한 살림살이는 거의 다 처분했으나 문제는 자동차였다. 이걸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한 중국인과 흥정을 했으나 약속빠르게 이리저리 계산만 하더니 포기해 버렸고, 간신히 아랍계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사람은 며칠 후에 와서 다시 차를 보고는 가격을 조금 깎았고, 또 다음에 와서는 조금 더 가격을 깎았다. 이렇게 차일피일 계약을 미루다 내가 연락을 했더니 이런저런 핑계만 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다음에는 온 가족이 함께 와서는 차가 어떻다는 등 하면서 값을 깎는 것이었다. 귀국일자가 잡혀서 가격도 정상 보다 훨씬 싸게 내놓은 마당이었던 때문에, 나는 버럭 화를 내면서 그들을 쫓아 보냈다. 다음날 그 사람에게서 메일이 왔는데, 자동차를 사겠다는 얘기는 없고 차가 뭐가 어떻다는 등 이런저런 얘기만 가득했다. 나는 차를 가지고 귀국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에게는 차를 팔지 않겠다는 답신을 함으로써 그 아랍인과의 실랑이에 종지부를 찍었다. 아라비아 상인이라 했던가? 아랍 사람들의 장사 수완을 아주 되게 체험한 것 같았다. 별로 정이 가지 않은 사람들... 아랍계 사람들에 대한 인식만 안 좋아지게 됐다.

아무래도 돈 없는 학생들이 사기에는 좀 무리일 것 같아 야후를 통한 인터넷 광고를 했다. 얼마 후에 어느 멕시코인에게서 연락이 왔고, 곧바로 계약을 했다. 아랍인과는 대조되는 시원시원한 성격이었다. 정열의 나라답게 화끈한 성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내일이면 귀국이다. 살면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와 떠나기 바로 전에 겪었던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 시간을 보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미국에서 보낸 일년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교포들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고, 또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거기다 귀여운 둘째 딸까지 얻었으니, 지난 10여 년간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며 몸과 마음 모두가 지쳐버린 내 삶에 제대로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해 준 셈이다. 해외견문록